



D-4

체전 100배 즐기기

<4> 간판급 스타들이 몰려온다



수영 박태환

역도 장미란

육상 김덕현

탁구 오상은

별들의 향연 뜨거운 광주

한국의 스포츠 스타들이 광주로 몰려온다.

오는 8일부터 14일까지 광주에서 열리는 '제 88회 전국체육대회'에는 광주 소속으로 뛰는 '한판승의 사나이' 이원희를 비롯해 세계체조 금메달 리스트 김대은, '여자 헤라클레스' 장미란, '마린보이' 박태환, 테니스 스타 이형택 등 세계적 기량을 갖춘 선수들이 대거 참가한다.

특히 이번 대회는 내년 베이징 올림픽을 앞두고 한국 금메달 기대주들이 총출동하는 종합대회라는 점에서 높은 관심을 끌고 있다.

광주대표인 '한판승의 달인' 이원희는 오는 9일 광주 살레시오고 체육관에서 유도 일반부 81kg 이하급에 출전한다.

같은날 유도 90kg 이하급에선 신인출신으로 2006 도하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캐낸 황희태(경기)가, 무제한급에선 '유도열풍' 장성호(경기)가 금빛 메치기에 나선다.

'국민 남동생' 박태환이 출전하는 수영도 놓칠 수 없는 종목이다.

박태환은 11일 오전 9시 광주염주수영장에서 남고부 자유형 200m 예선에 나선 뒤 이날 오후 4시 결승전을 치른다.

박태환은 이어 13일에도 같은시간에 자유형 100m에 출전, 세계적 수준의 기량을 선보일 예정이다.

박태환의 주종목은 자유형 400m, 1천500m이고 작년 대회에선 자유형, 계영, 혼계영에서 5개 금메달을 휩쓸며 최다관왕 영예를 안았지만, 내년 올림픽을 앞두고 약점인 단거리 속도 향상에 온 힘을 쏟고 있는 만큼 자유형 두 종목에서 전력을 다할 계획이다.

수영, 유도 뿐만 아니라 2011년 대구 세계육상선수권대회를 앞두고 육상에서 어떤 기록이 나올 지도 관심거리다.

'한국 육상의 희망' 임희남(경기)은 11일 오후 12시 45분 광주월드컵경기장 육상장에서 남자 100m에 출전, 28년만에 한국기록 경신에 도전한다.

또 다른 육상 기

스타 플레이어 주요경기 일정

선수	종목	장소	일시
박태환	수영	광주염주수영장	11일 남고부 자유형 200m 13일 남고부 자유형 100m
장미란	역도	정광고 체육관	11일 여자부 75kg급 이상
남현희	펜싱	동강대 체육관	12일 여자 플러레
이원희	유도	살레시오고 체육관	9일 남자 81kg 이하급
황희태	유도	살레시오고 체육관	9일 남자 90kg 이하급
장성호	유도	살레시오고 체육관	9일 남자 무제한급
김덕현	육상	광주 월드컵 경기장 육상장	11일 남자 세단뛰기
임희남	육상	광주 월드컵 경기장 육상장	11일 남자 100m
박철성	육상	광주 월드컵 경기장 육상장	12일 남자경보 20km
김대은	체조	호남대 체육관	9일 개인·단체 종합 11일 마루·철봉·평행봉·인마·도마·링 등 6개 종목
오상은	탁구	광주제일고 체육관	9일 남자 개인전
곽방방	탁구	광주제일고 체육관	9일 여자 개인전

※종합경기 단체 및 개최지의 사정으로 일정 변경 가능

대주 김덕현(광주)의 세단뛰기 기록 도전도 볼거리다.

남자 세단뛰기에서 17.07m의 한국 신기록을 보유중인 김덕현은 11일 오후 2시부터 기록 뛰어넘기에 나선다.

12일 오전 7시 30분 월드컵경기장 육상장에서 출발하는 남자경보 20km에선 '아름다운 꼴찌'로 잘 알려진 영암출신 박철성(전남)이 출전한다.

2004 아테네 올림픽서 최하위의 수모를 겪었던 박철성은 올해 오사카 세계육상선수권에서 세계정상급 '위커'들과 겨뤘던 15번째로 골인하는 기쁨을 토해내기도 했다.

탁구에선 국가대표 오상은(전북)과 주세혁(경북)의 일부 개인전이 눈에 띈다.

이들은 9일 오전 11시 5분부터 광주제일고 체육관에서 금빛 스매싱을 펼치고, 여자부에선 귀화선수 곽방방(대전)이 같은날 오전 11시 30분 울산대표와 맞붙는다.

전국체전의 꽃으로 불리는 기계체조에선 김대은(전남)과 양태영(경북), 유원철(경남) 등 한국 남자 체조 3인방의 맞대결이 최고의 빅 이벤트다.

국가대표 동료인 이들은 9일 오전 9시부터 밤 9시까지 호남대체육관에서 고향의 명예를 걸고 개인종합과 단체종합에서 격돌한 뒤 11일에는 오후 1시 30분부터 마루·철봉·평행봉·인마·링-도마 등 6개 종목에서 금빛 사냥에 나선다.

역도에선 세계적 여자 역도 스타 장미란(경기)이 11일 오후 3시 30분부터 정광고체육관에서 여자부 최중량급(+75kg급)에 나섰고, '포스트 장미란'으로 떠오른 17세 소녀 이애라(광주)는 여고부 75kg에서 '금빛바람' 들기에 도전한다.

동강대체육관에서 열리는 펜싱에선 12일 오후 4시 '미녀스타' 남현희(서울)와 오지은(전남)이 여자 플러레 개인전에서 격돌한다. 이외에도 전국체전이 열리는 경기장에 가면 다양한 종목의 스포츠 스타를 만날 수 있다.

이외에도 전국체전이 열리는 경기장에 가면 다양한 종목의 스포츠 스타를 만날 수 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체조 김대은

볼링 김여진

유도 이원희